논어 3편 팔일 13장 · 원문·풀이

王孫賈問曰：「『與其媚於奧，寧媚於竈。』何謂也？」子曰：「不然。獲罪於天，無所禱也。」

독음 · 왕손가문왈 여기미어오 녕미어조 하위야 자왈 불연 획죄어천 무소도야

쉬운 풀이(요약) · 하늘에 죄를 지으면 빌 곳이 없다. 힘 있는 자에게 아첨해 피하려 해도 소용없다는 뜻이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王 임금 왕 왕 / 孫 손자 손 손 / 賈 값 가 가 / 問 물을 문 문

曰 가로 왈 / 與 너울너울할 여 여 / 其 그 기 / 媚 아첨할 미 미

於 방향의 어조사 어 어 / 奧 속 오 오 / 寧 편안할 녕 녕 / 竈 부엌 조 조

何 어찌 하 하 / 謂 고할 위 위 / 也 어조사 야 / 子 아들 자

不 아닐 불 / 然 불사를 연 연 / 獲 얻을 획 획 / 罪 허물 죄 죄

天 하늘 천 천 / 無 없을 무 무 / 所 바 소 소 / 禱 빌 도 도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